절대강자(絶對强者)

(롬8:31~39)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을, 반지에서 다이아몬드로 비유를 합니다.
로마서가 다이아몬드인 중에서,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가장 반짝거리는 그 뾰족한 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부분 중에서도 결론에 해당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합니다.
좀 길지만, 너무 귀한 말씀들 우리가 같이 한 번 읽어봅니다.

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절대강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절대강자란, 도저히 상대해 낼만한 적수가 없는 천하제일의 강자를 뜻한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절대라는 말 자체가 상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상대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상대가 없는 강자이니까 천하제일의 강자를 뜻합니다.

여러분, 2011년에 나온 이 외수 씨의 책의 제목이 '절대강자'입니다.
부제는 뭐냐 하면, 이 외수의 '인생 정면대결 법'
그러니까 인생을 정면으로 대결해서 절대강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취지의 책입니다.
이렇게 절대강자로서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이 외수 씨는 먼저 우리들의 자신감을 점검합니다.
자신감이 기초가 되어야 절대강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내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좋은 학교, 훌륭한 집안, 멋진 이성 친구, 뭐 좀 더 붙여서 얘기 하자면 명품 아파트, 외제차, 명품 백 이렇게 남이 부러워할만한 이유를 하나도 갖지 못해서 굉장히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 그러면, 자신감이 지금 절대강자로서 살 수 있을 만큼 충만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취업이라든지 승진, 출세 이렇게 사회적 성공을 이루는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 옆에서, 주눅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러면, 난 지금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하여간 뭐가 되기는 되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버텨나가는데, 이제는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이 무슨 좋은 꼴이 내 인생에 보여 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절망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신감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자신감을 회복하느냐?
내 안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확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실을 이 외수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정신이에요.
어떤 정신이냐 하면, 지금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대는 절대강자이다.
살아 있다는 사실,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감을 가져도 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 자체가 절대강자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가질 근거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비유를 들어 설명하는데, 예를 들어 불국사에 다보탑이 있습니다, 석가탑이 있어요.
그 다보탑과 석가탑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몇 백 년 풍상을 그 자리에서 버텨온 것 말고는 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보물이 되었습니다, 존귀하게 여기지고 있습니다.
모든 유물들이 그렇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나의 존귀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가지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자신감을 확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이라야 절대강자로 살 수 있느냐 하면, 나의 부족한 현실이나 나의 단점, 이런 것들 앞에서 자꾸 이유를 달거나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반성을 하라는 이야기에요.
이 반성함을 통해서 모든 장애물들이 강화되는 대신에 허물어져 내려간다는 겁니다, 반성하는 것만으로도.
자꾸 변명하려고 그러면, 인생의 장애물들이 자꾸 강화된다는 얘기에요.
이게 바로 이 외수의 인생 정면 돌파법입니다.
그래서 절대강자로 살라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어떡하든지 꽃이 필 그날까지 살아 있고 버티기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반성 하면서.
아! 참, 설득력이 있지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절대강자의 선언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것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강자라는 거예요.
성경을 반지로 쳤을 때에,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다이아 반지에 끼여진 다이아몬드로 생각하고 있고, 8장을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데,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반짝거리는 부분의 결론을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는 절대강자다'라는 선언으로 끝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로마서라는 게 믿음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강자라는 얘기와 같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절대강자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절대강자인 이유는, 유물들처럼 나의 존귀함을 확인하고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강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선생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나를 위해도 대단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절대강자가 안 되는 것도 이상하지요.
그래서 양이 제일 강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금수 중에서?
다윗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앞에 두고 이제 출전하기 직전에, '내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양을 훔쳐 가면 쫓아가서 그 아가리를 찢고 양을 빼앗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양이 제일 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능력 없어도 강할 수밖에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래 뵈도 아무것도 없어도 이 건희 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박 근혜 대통령을 이길 수 있어요,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날 위하시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모두가 다 납득을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니까 천하의 강자, 절대강자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절대강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사는 실제의 모습을 묘사해놨는데 본문에,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강자인데, 그 다음 말이 이상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이 왜 나와야 됩니까?
환란과 곤고는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강자로서 극복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박해는 뭐고 기근은 뭐고 적신은 뭡니까?
기근이라는 것은 이 굶주림을 말하고, 적신은 헐벗음이에요.
박해는 왜 받습니까? 절대강자가 싸워서 이겨야지요.
그리고 굶주림이 뭐에요? 헐벗음이 뭐에요?
이게 절대강자의 모습에 어울립니까?
그런데 절대강자와 반대되는 모습의 절정은 36절에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기록된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이게 절대강자에게 할 소리입니까?
왜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삽니까?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으면, 이 세상 사회 내에서 실제로 생활할 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임당할 양, 도살당할 양처럼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loser 중에 상 loser라는 얘기에요.
이게 실제의 삶인데, 이러면서 어떻게 절대강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자, 이점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여겨지고, 도살당할 양처럼 여겨지는데도 절대강자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먼저 39절에 맨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사랑하셔서 먹이십니다, 들에 피는 백합화도 사랑하셔서 입히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리고, 그리스도 밖에도 내리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강자로 만든다는 이야기에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 것이 분명한 많은 재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임하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 힌두교를 믿고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르다는 이야기에요.
그리스도 안이 어디라 그랬죠?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는 시점으로부터, 죽는 자리로부터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리까지, 그 두 점을 잇는 공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승천하신 주님이 계신 그 하늘과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의 지점을 잇는 영역 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절대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절대강자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32절에 우선 첫 번째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니까,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우리가 절대강자가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절대강자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 뭘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모든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과 맞추어 볼 때, 뭘 받았다고 결산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받은 게 없어요.
사도바울은 뭘 받았습니까?
아까 이 외수 씨의 책에서 언급된 것처럼, 좋은 학교, 하나님께서 내가 일류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까? 저한테는 안 주셨어요. 서울대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공부가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니까 잘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막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잘 되니까 되는 거예요, 공부가 재미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공부가 재미가 없던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 거지요.
지금 뭐 명품 아파트에 삽니까? 명품 외제차가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뭐 출세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다 줬대요, 모든 걸 다 주신대요, 하나님이.

뭘 받았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 죽은 시점과 천국 사이에 마음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상 것을 주어도 그것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뭘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세상을 떠나 있는 마음에게, 어떤 세상 것을 주더라도 그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느끼고, 좋다, 나쁘다, 아! 행복하다, 느낄 수도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럼 뭘 받았다는 얘기이겠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 눈에는 이 세상 것은 하나도 모든 것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만을 향해 있는 마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에서 갖고 계신 것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면서 누리시는 그 영광,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영광, 천사들이 보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늘나라 천국, 이게 모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경우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영원히 갖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얘기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 날이 되게 되면, 이 세상 지구와 온 별과 달과 해가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 중에서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 죽고 하늘을 향해 있을 때, 받을 모든 것들은 돈 얼마나 좋아요.
내 손에 백만 원 들어오고 천만 원 들어오고 일 억 들어왔다 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늘이 내 손에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서 내 아버지로서 내게 주어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실로 느껴진다는 얘기에요.
이게 모든 것을 받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절대강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그럽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되세요. 왕 됐다고 총독 됐다고 사회적으로 이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있다고 됐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당신들은 세상 것 모든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나는 세상 것 아무것도 안 갖고 있어도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겁니다'라고 말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실제로.
더 이상 돈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더 이상 출세한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하늘나라를 다 갖게 되면 절대강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두 번째로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누가 능히 정죄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고발과 정죄는 꼭 범죄를 저지른 뒤에 재판정에 섰을 때에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까 이 외수 씨의 책에 대한 언급에서 나왔습니다마는, 보세요, 좋은 학교 못 나왔어요, 멋진 이성 친구도 없어요, 훌륭한 집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loser라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실제로 사도바울과 같은 경우도 세상 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가진 게 옛날에 있었지만 그걸 활용하지를 않으니까 다 묻혀 버렸습니다.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혀 버린 거예요.
근데 다 가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규정한 성공의 기준, 잘 나가는 사람의 기준, 존경할 만한 사람의 기준이 내게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되고, 그 사회적인 기준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나는 루저 중에 상 루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나를 루저라고 얘기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나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내 마음에는 그들의 단죄 앞에서 전~혀 주눅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럴수록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거지요 죄인의 입장에서, 아그립바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 나를 닮으라고 얘기하고, 나와 같이 되라고 얘기한 바울의 말처럼,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절대 주눅 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절대강자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어요, 있으면서 주눅 들지 않는 거야 누가 못합니까?
근데 아~무 것도 없고, 내 마음에서는 실제로 대단한 것들이 내 명의로 주어져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쓸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일 날을 기다리면서 내 명의로 주어진 이 세상의 소유들을 다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또 실제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눅 들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에 의해서, 있거나 없거나 내가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강자로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위험이나 환난과 곤고나 박해 기근이나 적신 위험 칼.
도살할 양 같이 여김 당하고, 그리고 종일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취급을 받아도 넉넉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하면, 사망과 생명과 천사, 권세자들, 현재, 장래, 능력, 높음, 깊음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절대강자 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풍랑 만난 배에서 잠을 주무시던 그것이에요.
절대강자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 어떠한 현실적인 상황도 내 마음의 평강을 깨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육신이 속해있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마다 순간마다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육신의 영역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영역에서 무슨 풍파가 오더라도 마음의 평강이 깨어질 수 없는 것은,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절대강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교 당했습니다, 핍박당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핍박당하여 죽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절대로 예수 믿지 말아야지, 저렇게 인생을 실패하지 말아야지라고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지마는, 그게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 외수 씨가 말하는 대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정면 돌파하는 자세로 반성하면서 모든 장애를 극복해서 결국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꽃을 피웠다 하더라도 그는 루저입니다.
그는 루저에요.

진짜 절대강자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는 자입니다.
날마다 세상에 대해서 죽을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고 이 세상 그 어떤 가치가 없더라도, 내 마음 속에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결코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 루저로 전개될 수 없는 마음의 자유로움을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 육체가 머물고 있는 이 세상 현실 속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결코 평강이 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절대 평강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절대강자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에 대해 죽는 시점과 승천하신 주님, 그 두 지점을 잇는 영역 안에 마음이 계~속 머물러 있는 자들, 그들이 바로 절대강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절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주심을 통하여, 이 세상을 절대강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